# 전남 유일 '거리두기 2단계 순천'…주말·휴일 완화 갈림길

## 코로나 재확산 이후 전남 43% 순천서 발생…신규 5일째 한자릿 수

## 시민불편·자영업자 타격 현실화…다음주 거리두기 완화 논의 전망

지난 11월 7일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폭증했던 전남지역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날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오는 7~8일 주말과 휴일 동안 지역민들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전국 첫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인 순천의 거리두기 완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전남에서는 14개 시군에 걸쳐 모두 2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 101명, 광양 38명, 나주 27명, 목포 19명, 장성 19명, 여수 13명 등이다. 일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달 18일로 27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9일부터 신규 확진자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20명을 기록한 이후, 29일 3명→30일 2명→1일 1명→2일 2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3일 오후 6시 현재 이날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자정까지 확진자 0명을 이어간다면, 최근 닷새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단 8명에 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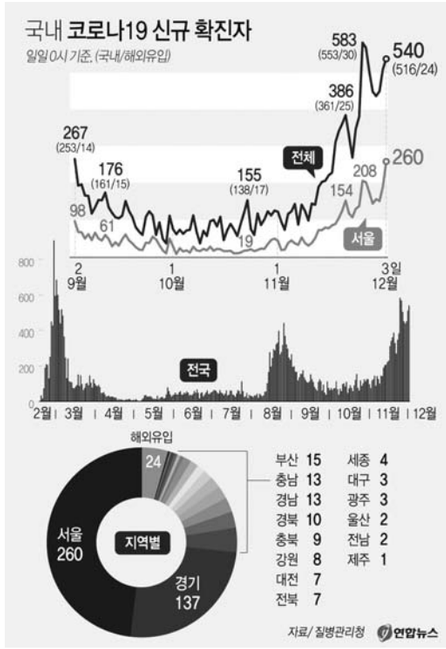
지난달 2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순천지역도 확산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일 확진자는 1~2명에 그친다. 지난달 18일 하루에만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으나,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한다면 다음 주에는 중앙 방역당국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순천에서는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영업 타격이 현실화됐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됐고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 문을 닫아야 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시설(14종)의 입장객 수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 돼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손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도 없었다. 종교활동도 제약을 받아야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자칫 방심할 경우 삽시간에 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지역민 불편, 자영업자 영업 타격 등 피해가 큰 만큼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40명 늘어 누적 3만570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 516명, 해외유입 2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511명)보다 29명 늘어나며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다가 이후 3일간은 잠시 400명대로 내려왔으나 다시 500명대로 복귀했다. 코로나 19의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500명대 안팎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 주세요'

광주일보사와 한국신문협회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희망 잇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나눔의 손길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는 기적이 됩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0년 12월 4일(금) ~ 2021년 1월 31일(일)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53-107-999990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광역시지회(062-222-3566)
농 협 617-01-162651
예금주 : 전라남도공동모금회(061-902-6800)
■ ARS번호 : 060-700-1212 (한 통화 3천원)
■ 문자기부 : #9004 (문자 1통 2천원)
■ 문 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2020년 12월 4일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

## 내주 전체 계약현황·확보물량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3일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주께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90%였다. 이 회사는 앞서 1도즈(1회 접종분)당 공급 가격을 3~5달러(약 3000~5500원)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해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지난 2일 영국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화이자를 비롯해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사가 개발한 백신은 크게 mRNA(메신저 리보핵산)을 이용한 백신과 바이러스를 전달체(벡터)로 이용한 형태, 항원 단백질 일부를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합성항원 백신 등 3개 플랫폼으로 나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제조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mRNA 백신을 개발 중인데, 이들은 자사 백신의 예방효과가 각각 95%, 94.1%라고 밝힌 바 있다. 가격은 1도즈당 화이자가 19.5달러(약 2만1500원), 모더나는 15~25달러(약 1만6500~2만7500원)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2회 접종이 필요하다. mRNA 백신은 단기간 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 20~30대 확진자 22.3%→32.3% 증가

## 사회활동 많은 연령층 중심 발생…지역으로도 점차 확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0~30대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역 분포도 넓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이 지난 2주간(11.20~12.3)의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들이 나온 지역별 비중은 서울 38.0%, 경기 23.9%, 인천 5.6%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3.8%, 경남 3.7%, 충남 3.3%, 전북 3.2%, 충북 2.7%, 광주 2.2%, 전남 2.0%, 경북 1.5%, 대전 1.0% 등이었다.

감염경로 별로 따져보면 지역 집단발생 38.5%, 확진자 접촉 35.0%, 감염경로 조사 중 15.8%, 해외유입 및 관련 5.9%, 병원·요양병원 등 4.8%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방대본은 우려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닷새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이 311명, 비수도권이 140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직전 주(3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 확진자가 증가하는 흐름 역시 주시하고 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조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점도 방역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 단장은 "20~39세 확진자 비율은 10월 22.3%, 11월 28.7%, 12월 32.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은 결코 느슨해질 수는 없는 그런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하다"면서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인 환자 증가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이나 됐다.

이 단장은 "419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최대치"라면서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고 많은 접촉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환자 발생에 있어 불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 공 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광주조합 대의원 선출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 임기
2021. 1. 1. ~ 2024. 12. 31.(4년간)

2 대의원 선출인원 : 25명

3 후보자 등록
광산구, 서구, 남구, 함평군, 관내에서 담배를 판매 중인 회원

4 서류제출기간
2020. 12. 1. ~ 2020. 12. 18 (금)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선 거 권
선거공고일 현재 전 회원

6 피선거권
정관 제22조 제1항 각 호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7 문의처 : (062)955-2615

2020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광주조합
선거관리위원장 홍 춘 기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제백(340411-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4길 72-47 (양평리)

피상속인 망 정제백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1511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4일

• 상속인
1. 김옥성(310115-XXXXXXX)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4길 72~47
2. 정우진(491207-XXXXXXX) 서울 성북구 안암로 41, 201호 (안암동5가)
3. 정병권(520215-XXXXXXX) 광주 서구 금화로149번길 11, 306동 303호(금호동, 금무마을호반리젠시빌)
4. 정금순(550821-XXXXXXX)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20 109동 1004호(학동, 무등산아이파크)
5. 정병반(590702-XXXXXXX) 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1길 6 (용수리)
6. 정병복(590702-XXXXXXX)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27 103동 704호(도동리, 도동휴먼시아)
7. 정병민(620507-XXXXXXX)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4길 72~47
8. 정병욱(650301-XXXXXXX)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4길 72~25
9. 정병철(680427-XXXXXXX)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3길 65
10. 정성심(710314-XXXXXXX)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35, 203동 602호(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단지)

• 신고기간 : 2020. 12. 4. ~ 2021. 2. 12.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8. 정병욱의 주소

## 산행안내

**12월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5일(토) 여수 개도 천재봉 · 봉황산,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2월6일(일)**

▲**광주kj산악회** 12월6일(일) 포항 호미반도 해파랑길 15코스,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옆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 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